

# 민주당 이번주 대대적 인사쇄신 예고 ‘술렁’

### 당·청 갈등설에 “친정체제 강화용 물갈이” 뒷말 무성

### 秋대표 “특정인 추천은 오보...사적 권한 내려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에 대표의 전면적 인사 쇄신 카드로 술렁이고 있다. 이번 주 초반 대대적인 당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집권 초반부터 당내 분란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특정한 자리에 기용하기 위한 ‘물갈이’에 나서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에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불화설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놓고 당·청 갈등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대표는 당직 개편을 ‘중폭 이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당으로 변화한 위상에 걸맞게 당·정·청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추 대표의 생각이다.

추 대표 측은 중폭 이상의 당직 정비는 물론 집권당으로의 ‘혁신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당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만 내년 예고된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 등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와 청와대가 청문회 준비로 인해 정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만큼, 당이 앞장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렸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은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할 때다. 선거를 마치고 집권당이 된 지금이 아니면 정비할 때가 없다”

며 인사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당내에서는 대선 승리의 공을 세운 당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이번 개편의 배경에 김민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직에 임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계속해서 나온다. 이미 추 대표가 안규백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청와대의 혁신 행보에 당이 지원하지는 못할 만장,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치 내분이 시작된 듯 비치는 모습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안을 두고 이미 한차례 의견 대립으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사개편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인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설에 대해 “선대위 구성 초기에도 일부 혼선과 오해가 있었듯 이는 오보와 낭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추천했다는 오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추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사무총장직에 김민석 전 의원 등 측근 인사를 합류시키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추 대표가 임종석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며 두 사람 간의 갈등설도 제기됐다.

추 대표는 “당정 관계는 비선실세가 아닌 당의 공적질서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당 대표인 저도 사적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복당 확정

### 의석수 107석으로 늘어...친박 인사들 징계 해제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해제를 최종 확정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바른정당 탈당파 이은재 의원 등 13명과 정갑윤 의원의 복당, 친박 서정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석수는 107석으로 늘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도 정지했다. 지난 6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한 104주 ‘당무우선권’에 근거해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지시 형태로 단행한 사면 조치를 수용할 것이다.

한편, 홍 전 지사는 같은 날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홍 전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며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오는 6~7월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귀국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5·18기념식 참석

### 18일 광주 방문 낙선 인사...전국 순회 정치 재기 모색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계은퇴설을 일축하며 ‘강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낙선 사례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위한 모색에 나선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지난 12일 안 전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를 찾아 지난 대선 때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날 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월 18일에 다시 오겠다. 그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안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낙선 인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선 패배 후 한동안 침거하면서 재출전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휴지기

를 최소화하고 정치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전북 순으로 전국을 돌며 그동안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재충전의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의 전국 순회는 대선 막판 ‘걸어서 국민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했던 ‘두 벽이 유세’의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안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바닥 민심을 다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11일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한 만찬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다”라며 “앞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해 전북과 광주 등 전국을 다니며 그간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오른쪽)과 이용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홍석현·申 이해찬

### 文대통령 4강특사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로선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선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이 각각 특사로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사 임무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 파견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북핵정책 등 문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의 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방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우리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파견될 홍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 조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중국 특사로 확정된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선인 중국 특사로 이미 파견된 경험이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중국 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

일본 특사인 문 의원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철 의원 “文정부 연정 원하면 당대당 합의 선행돼야”

국민의당의 신임 원내대표 레이스가 유성엽(3선 정읍·고창) 의원과 김관영(재선·군산) 의원, 김동철(4선·광주 광산갑) 의원(이하 기호 순)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김동철 의원이 14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여당이 잘할 때는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당당하게 비판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연정을 원한다면 국민의당에 당 대

당 정식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연정과 협치는 구체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절차,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당 대 당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정을 핑계로 개별의원과의 암

#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사표

유성엽·김관영의원 3파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 간 통합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아직 그런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에는 이용호(조선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을 마쳤다. 새 원내사령탑은 오는 16일 선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 ENJOY FUTURE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MBA과정 추가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 2017. 5. 15(월) ~ 7. 14(금) 18:00

입학 전형 | 2017. 7. 22(토), 필답고사(모의토익) / 면접고사

기초과목 수업기간(K-MBA) | 2017. 8. 14(월) ~ 8. 26(토)

합격자 발표 | 2017. 7. 28(금) 15:00

개강일 | 2017. 8. 28(월)

대안	학 위 과 정	모 집 분 야	모 집 인 원	비 고
대안	경영전문석사 (MBA)과정	Global MBA(주간, 야간 및 주말)	00명	영어 및 한국어
		K-MBA(야간 및 주말) : 한국형 MBA	00명	한국어
	계	100명		

문의전화 | 062-530-1501~2 자세한 내용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mba.jnu.ac.kr> 참조